

시행 두 달 중대재해법, 광주·전남 지자체 대비는 '제각각'

'중대시민재해'는 지자체장도 책임...전담조직 구성 권고 광주시·전남도, 법 시행 전 안전 부서 중심 TF직제 운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의 전담 조직·인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또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지자체가 직접 소유 또는 운영 책임을 맡는 운수·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공공시설물 등지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각급 자치단체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담 조직 구성을 권고했다.

광역시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 형태의 전담 조직을 꾸렸다.

광주시는 안전정책관실·노동협력관실·총무과 등 3개 과 관련 인력 4명으로 '중대재해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장은 안전정책관(4급)이 맡는다.

전남도도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5명 규모로 '중대재해지원TF팀'을 꾸려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전담 조직·인력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부서를 상시 기구로 둔 자치구는 서구가 유일하다.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피해복구 지원 업무를 도맡는 한시 기구 산하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지난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북구는 안전총괄과장 중심으로, 기획·안전총괄·총무·산단·복지·도시계획·보건행정 등 6급 담당자 6명이 참여하는 '중대재해TF팀' 조직을 구성했다. 올 하반기에는 6급이 팀장을 맡는 공식 직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동구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TF

팀'을 운영하되 ▲중대시민재해(주민안전담당관) ▲중대산업재해(일자리경제과) ▲사업장내 재해 예방관리(행정지원과) 등 각 분야별로 부서를 지정했다.

광산구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광산구 중대재해 TF'팀을 꾸렸다. 남구는 업무 전담 인력 2명 배정을 논의 중이고, 오는 7월 정기 인사 전후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9개 시·군은 여전히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

나주시·광양시·화순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진도군 등은 관계 부서간 협의 중이다. 해남군·영광군은 팀장, 안전·보건 분야 각 실무자 등 3명 체제로 윤곽은 잡았다. 올해 상반기 중 전담 조직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안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상시 기구 또는 TF팀 형태의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여수시와 신안군은 상시 직제 화까지 마쳤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한 달 전(지난해 12월 27일)에서야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해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인사 발령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단체 재량으로 규정한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조직 개편이 무엇인지 지점이 모호하



다는 주장도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은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말에서야 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관련 처벌 강화 내용과 전담 조직 구성 권고안이 전달됐다. 현실적으로 미리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지자체·지방공기업이 포함되면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 적용 사업장 기준을 각 소관부서 또는 산하·출연기관 단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남진기자

경찰, 오늘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10월31일까지 범위 확대

유사·미수 범죄로 범위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2424명을 검거, 이 중 79명을 구속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4436억원이었지만 2020년 12% 증가해 4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올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

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공무원 불친절해' 면사무소 찾아가 난동, 60대여성 징유 선고

술에 취해 "코로나 백신맞고 남편 죽었다"며 사대질·욕설 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뒤 사망한 배우자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면사무소 직원이 불친절한 하다는 이유로 욕설과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손철)은 공무원행방악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65·여)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

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20일 오후 2시 8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배우자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공무원 B(45)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용 집기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술

에 취한 채 면사무소를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미등기 땅 소유권을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했다"고 사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서류 등치를 책상에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대기오염물질 미측정 의혹...광주경찰, 영락공원 화장장 수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5가지, 대기환경오염물질 검사 미측정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락공원 화장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5가지의 대기환경오염물질 검사를 지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여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중 1가지 사안은 매월 2회 측정을 해

야 하지만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락공원 화장장 측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검사 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존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